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를 쓴 에스라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게 행한 왕 다윗의 일생을 중심으로 기록하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지만 사울의 족보를 언급한 후에는 사울이 전쟁에 나가 죽임을 당하는 것만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13절 이하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라고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누구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사무엘서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사울이 범한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의 '지키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샤마르' 또한 우리 말과 같이 여러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키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든 간에 이 말은 함축된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라는 말의 전제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키는 것인가요? 먼저는 '주의를 기울이다' '유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가지고 유의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 보고"라는 말씀에서 '지켜 보고'가 바로 '샤마르'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유의하기 마련입니다. 어린 아이가 말을 배울 때 그 부모는 그 아기에게서 한 마디라도 들으려고 관심을 가지고 유의하여 듣습니다.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도 상대의 말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유의하며 듣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관심을 가지고 유의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보존하며 보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분의 말씀도 귀하게 여기며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전 4:6)"라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도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것은 기록 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여 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분의 진의를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시119:72)"라고 하고 있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시119:103)"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여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시78:7).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준수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듣고 유념하여 그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즉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많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단 한가지 명령을 불순종 하였을 때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22절에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그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도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때 사울이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지만 결국에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악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에게는 그들 도와 전쟁을 하는 유능한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대상14장10절, 14절). 다윗의 이와 같은 마음은 자신이 사울에 쫓겨 다닐 때에나 자신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 다윗 성에 살 때에나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4장씩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년에 한번이라도 성경을 완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